

S사 핵심인재대상 사내 베트남 전문가 육성 과정

베트남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교육일정: 2021.08.23~2022.05.03



HR건설팅본부
이현정(Michelle) 매니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S사에서 선발된 8명의 핵심인재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사내 베트남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1년간 총 2개 차수, 차수 당 36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Zoom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8명 모두 베트남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었기 때문에 입문 레벨부터 시작했습니다. 입문 레벨인 만큼 학습자들의 발화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8명을 총 3개 반으로 나눠 소수 정예로 수업을 했고, 강사님 세 분간 커리큘럼과 평가 범위를 통일하여 클래스간 진도 및 콘텐츠 갭을 최소화했습니다.

1차수에서는 입문~초급 수준의 일상 회화를 학습했고, 2차수에는 베트남 파견 혹은 출장을 대비한 기초 비즈니스 회화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문화' 측면은 마이크로러닝으로 제공하여 베트남 이문화 및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내 어학 과정 홍보를 위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베트남 이문화 오픈 특강'을 열었습니다. S사에서 베트남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어학 과정 오픈 한 달 전 이틀간 점심 시간 2시간을 이용해서 사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 베트남 이문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현 KOTRA 아카데미 교수님을 초빙하여 베트남 개요, 베트남에 대한 오해, 경제, 문화, 소비 경향,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다뤘고 임직원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Q&A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특강을 듣고 베트남과 베트남어에 대해 관심이 생긴 임직원들이 어학 과정에 신청을 했고, 그중 핵심인재 기준에 부합하는 8명을 선발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발하여 과정을 수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관심이 있고 학습 의지가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여 입과 시켰기 때문에 강한 학습 동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년간 이 탈자 없이 8명 모두 높은 출석률과 점수로 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기업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베트남에 S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장 파견을 하진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학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파견 전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어학 학습을 시켜도 되지만,

